

한 경계인의 민족적 고아의식*

- 今村英治의 「同行者」를 중심으로 -

노상래**

|| 차례 ||

1. 서론
2.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전사적 고찰과 일본어 글쓰기
3. 내선일체의 균열과 '내부자 시선'으로 본 재만조선인의 서사
4. 결론

【국문초록】

만주국은 착종의 공간이었다. 착종의 주요 원인은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볼 것인가 만주국민으로 볼 것인가에 있었다. 여기에 동화의 논리로서의 내선일체론과 조선인의 차별철폐론이 공존하면서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정체성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착종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이마무라 에이지의 「동행자」이다. 이마무라 에이지는 창씨개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만주국에서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활동한 작가였다. 이 점은 이마무라 에이지와 같은 조선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이 논문은 「동행자」를 통해 그것을 살펴보았다. 당시 만주국에서 살던 조선인 내부자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 「동행자」를 통해 만주국 내부에서 일던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내선일체와 오족협화의 논리 속에 숨어 있던 차별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창씨개명한 조선인 작가로 활동하던 이마무라 에이지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친일문학을 좀 더 정교하게 바라봐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영남대학교 교비 지원(212A380002)에 의해 작성되었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동행자, 내선일체, 오족협화, 내면균열, 불령선인, 만주국

1. 서론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만주를 “일본인의 정신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향’이자, 방황하던 근대정신이 만들어낸 정주의 땅”¹⁾이라고 규정하였다. 방황하던 근대정신이 안주할 곳으로 찾아낸 만주였으니, 그들에게 만주는 ‘이향(異郷)’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에게 만주는 착종의 공간이었다. 그것은 재만조선인의 교육, 국적, 징병제 등에서 빚어진 만주국과 조선총독부 사이의 혼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착종의 주요 원인은 재만조선인을 내선일체의 원칙 아래 ‘일본제국신민’으로 볼 것인가, 오족협화의 원칙 아래 ‘만주국민’으로 볼 것인가에 있었다. 여기에 ‘일본인측에서 제창한 동화의 논리로서의 내선일체론’과 ‘조선사람측에서 제창한 차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논리의 내선일체론’³⁾이 공존하면서 빚어내던 내선일체론의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더해지면 조선인의 정체성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착종의 공간에서 가장 빈번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차별문제였다.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반도 동포를 총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내선일체의 중국의 목적을 “내선인 사이의 일체의 구별 철폐”⁴⁾로 내세웠지만 내선의 무

1) 川村湊, 『異郷の昭和文學』, 東京 : 岩波書店, 1990, pp.26-27.

2) 자세한 것은 田中隆一, 「日帝의『滿洲國』統治と在滿韓人問題:『五族協和』と『內鮮一體』の相剋」, 『만주연구』1, 2004, 만주학회, pp.89-103 참조할 것.

3)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東京 : 未來社, 1997, p.149.

4) 「『內鮮一體』의 完成へ—大東亞建設の道義的示範:南總督の訓示內容」, 『內鮮一體』

차별평등은 조선에서건 만주에서건 구호로만 곁들고 있었다.

특히 만주국 건국 이후 만주지역에 살던 ‘조선족’은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식민지의 비참한 삶을 경험했으며, ‘의사제국(擬似帝國)’의 주변인으로서 소외와 억압”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멸시와 차별에 대한 대응 방식은 여러 갈래였다. 중국이건 일본이건 자신의 민족주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만주의 조선인들은 이산, 유리, 방황 등의 단어와 친숙해져 갔다.

‘빈농 중에서도 빈농으로서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생활욕에 매인 가련한 군상’⁶⁾으로 전락한 만주의 대다수 조선인들은 현실적 절곡을 해쳐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일본인 되기 혹은 일본인 흉내 내기라는 왜곡된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되거나 일본인 흉내 내기는 하위주체의 결핍을 의미한다. 차이 드러내기와 뒤이어 차별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에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위치가 결정지은 교묘한 위계가 투사된다. 그 위계는 때로 매우 견고하고 확정적이어서 식민자는 어떠한 균열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균열은 피식민자에게서 종종 발견된다.

이 논고에서 살펴보려 하는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의 소설 『동행자』는 바로 그런 균열의 지점에 있는 피식민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식민자를 모방하고 식민자와 동일시되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드러나는 불안과 공포는 피식민자의 내면 균열을 야기한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만주를 단지 ‘친일과 항일’ ‘수난과 저항’의 도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유이민자들의 욕망과 무의식을 해명하

創刊號, 內鮮一體實踐社, 1940. 1, p.14.

5) 김경일 외, 『동아시아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p.17.

6) 洪鍾仁, 『在滿, 北中 朝鮮人問題-問題되는 그 印象은』, 『조선일보』 1937. 6. 16.

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⁷⁾는 한수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이마무라 에이지가 보여주는 문학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전제로 한 국가주의, 즉 ‘왕도’ 지향의 글쓰기⁸⁾이며, 거기에는 ‘현 세순웅 내지 식민문학과와의 협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⁹⁾ 작품들이 많지만, 동시에 ‘재만조선인의 미묘한 입장을 그린’¹⁰⁾ 작품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미묘한 입장이라 함은 일본인에게는 “적과 동일시되고, 다른 편인 ‘불령선인’ 쪽에서도 ‘적대’시 되는 상황”, 즉 ‘양자의 사이에 끼어’¹¹⁾ 있는 고뇌하는 만선인(滿鮮人)의 처지를 말한다.

본고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주자-내부’¹²⁾의 시선으로 이마무라 에이지의 『동행자』를 살펴 소설 속에 담겨 있는 재만 조선인의 균열 양상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 사관’¹³⁾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7) 한수영, 『‘재만(在滿)’이라는 경험의 특수성』, 『동남어문논집』 제29집, 동남어문학회, 2010, p.225.

8)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p.41.

9) 김장선, 『이마무라 에이지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국제한인문학회, 2005, p.125.

10) 川村湊, 『滿洲崩壞-『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東京: 文藝春秋, 1997, 107쪽.

11) 黒川創, 『解説-螺旋のなかの國境』, 黒川創 編, 『<外地>の日本語文學選2-滿洲・內蒙古/樺太』, 東京: 新宿書房, 1996, pp.342~3.

12) 한수영은 『친일문학의 재인식』에서 ‘이주자-내부의 시선’(소명출판, 2005, pp.136~190)을 주장한 바 있는데, 단순화될 수 없는 재만조선인의 삶을 조명한 재만조선인문학의 중층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유사한 논점에서 만주문학을 다룬 예로는 김학면, 『재만작가 김창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파시즘’』(『한국현대문학연구』 2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진영복,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담론과 균열』(『한민족어문학』 5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등이 있다.

13) 윤건차, 하종문·이애숙 역, 『日本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p.9.

2.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전사적 고찰과 일본어 글쓰기

지금까지 알려진 이마무라 에이지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아 전기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에 대한 정보를 모자이크하면 이렇다. 이름은 장환기(張喚基)¹⁴로, 1911년 조선에서 태어나, 만주로 건너간 후 신경 대륙과학원을 졸업하였다.¹⁵ 이마무라는 『신경일일신문(新京日日新聞)』의 단편모집을 통해 등단하며¹⁶, 1937년 8월에는 만주문화회 신경지부 설립에 참여한다.¹⁷ 1938년 현재 거주지는 ‘신경특별시 송지호동(新京特別市 崇智胡同) 109 풍락장칠호실(豐樂莊七號室)’이며 『신경문예집단(新京文藝集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¹⁸ 1939년 11월 현재 그는 ‘신경만일문화협회(新京滿日文化協會) 촉탁’ ‘만주문화회(滿洲文化會) 사무(事務)’이면서 『문학지대(文學地帶)』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¹⁹, 『만주문예연감』Ⅲ의 ‘저작인 대표’ 및 ‘발행인’으로 주소는 ‘신경특별시 흥안대로 221’이었다.²⁰ 1939년 말 즈음에 이마무라는 ‘기타무라 켄

14) 木山捷平, 『詩人の酒』 『別冊文藝春秋』, 1966, 川村湊, 『滿洲崩壞-『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p.107 재인용, 川村湊, 『文學から見る『滿洲』-『五族協和』の夢と現實』, 東京:吉川弘文館, 1998, p.113, 川村湊, 『野川隆・今村榮治・埴英夫作品集 解説』, 『日本植民地文學精選集 22』, 東京:ゆまに書房, 2001, p.4. “장환기가 본명인지 확실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舊<滿洲>文學關係資料集』(2), 2001. 3, p.2.)

15) 滿洲文藝年鑒編纂委員會 編, 『滿洲文藝年鑑』, 1943. 11, 김장선, 앞의 논문, p.112 재인용.

16) 山本謙太郎, 『在滿鮮系藝文界の昨今』, 『국민문학』, 1945년 2월호, p.44. 김장선에 따르면 그의 작품 중 『滿京日日新聞』에 처음 발표된 작품은 『惡夢』(1935. 8. 2. ~8. 13.)이다.(김장선, 앞의 논문, p.115.)

17) 大内隆雄, 『滿洲文學二十年』, 新京:國民畫報社, 1944. 10. 5, p.240.

18) 滿洲文化會 編, 『滿洲文藝年鑑』Ⅱ, 奉天:滿蒙評論社, 1938, 12, p.459 및 岡田英樹, 『文學にみる『滿洲國』の位相』, 東京:研文出版, 2000, p.279.

19) 滿洲文化會 編, 『滿洲文藝年鑑』Ⅲ, 1939. 11, p.467.

지로(北村謙次郎), 요시노 하루오(吉野治夫), 오우치 타카오(大內隆雄), 고마츠(小松) 등과 함께 문화회의 파견으로 만주 각지를 돌며 현지시찰을 하며²¹⁾, 1941년 7월 27일에 발족된 만주문예가협회에서 서기 신분으로 활동하기도 한다.²²⁾ 1944년 6월 18일 조선문인보국회 주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경성일보, 매일신보의 공동 후원으로 부민관 중앙당에서 열린 결선편제즉응재선(在鮮)문학자총궐기대회에 만주국문예가협회 대표로 꾸땡(古丁)과 함께 참석한다.²³⁾ 하지만 조선문인보국회에 만주국 대표로 참석할 즈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창작의 붓을 놓고 있었으며,²⁴⁾ 그런 삶은 이듬해에까지 이어진다.²⁵⁾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예문 협회 사무를 보기도 하지만 수입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어 부부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정도로 이마무라의 생활은 궁핍했다.²⁶⁾

등단 이후 단편소설 7편, 수필 8편, 희곡 2편을 발표한다.²⁷⁾ 당시 창씨명으로 활동하던 조선인은 이마무라 외에도 ‘아오키 레키치(青木黎吉), 야마모토 켄타로(山本謙太郎)’²⁸⁾ 등이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만주국이 건

20) 滿洲文化會 編, 『滿洲文藝年鑑』Ⅲ, 1939. 11, 간기 참조.

21) 大內隆雄, 앞의 책, p.273.

22) 岡田英樹, 앞의 책, p.281.

23)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83, p.158.

24) 山本謙太郎, 『滿洲に於ける半島人藝文の動向』, 『국민문학』 1944. 6, p.51.

25) 山本謙太郎, 『在滿鮮系藝文界の昨今』, p.44. 이 글에 “요즘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로 보아 1944년 접어들면서부터 이마무라는 거의 절필 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다.

26) 竹内正一, 『哈爾濱·新京——引揚者の手記』, 『作文』 第67集, 東京:作文社, 1967. 7, p.49. 이 소설을 보면 이마무라가 변변한 외투가 없어 우즈미(內海)에게 지급되는 외투를 자기에게 달라고 구걸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록 소설이라는 허구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마무라 에이지라는 실명이 소설에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마무라의 궁핍한 삶을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27) 자세한 내용은 김장선의 논문 pp.115-116 참조할 것.

국된 후 활동하던 조선인은 대략 '10여인' '작품 수는 50여편'²⁹⁾ 정도였으니, 이마무라의 작품이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이마무라 에이지의 소설 『동행자』의 초출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니시무라 신이치로(西村眞一郎)와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애구(隘衢)』 1938년 7월호라고 주장한다.³⁰⁾ 김장선은 『애구』 '1938년 초'라고 말하며, 『동행자』가 『만주행정(滿洲行政)』 1938년 6월에 재록되었다고 주장한다.³¹⁾ 가와무라 미나토는 "초출은 『만주낭만(滿洲浪漫)』 제1집이라는 문헌도 있다"³²⁾라면서 조심스럽게 『만주낭만』 제1집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채훈도 『만주낭만 1』, 1938년 7월'설을 제기하고 있다.³³⁾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壽勝)는 『만주행정(滿洲行政)』 1938년 6월호에 초출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⁴⁾

그런데 가와무라 미나토의 경우 『애구』설을 주장하나 『만주낭만』설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초출설에 대한 혼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혼선의 요지는 두 가지이다. 초출의 잡지가 『애구』이나 『만주낭만』

28) 川村湊, 『文學から見る『滿洲』, p.110.

29) 山本謙太郎, 『滿洲に於ける半島人藝文の動向』, p.51.

30) 西村眞一郎, 『評論』, 滿洲文化會 編, 『滿洲文藝年鑑』Ⅲ, 1939. 11, p.10과 川村湊, 『滿洲崩壞-『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p.107. 한편 가와무라 미나토는 『동행자』의 게재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어 스스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隘衢』→『滿洲行政』(5권6호, 1938년 6월)→『滿洲浪漫』(창간호, 1938년 10월)→『滿洲文藝年鑑』(제3집, 1939년 11월)→『<外地>の日本語文學選 滿洲・內蒙古/樺太』(1996년, 新宿書房), 川村湊, 『野川隆・今村榮治・塙英夫作品集 解説』, 앞의 책, p.6.

31) 김장선, 앞의 논문, p.115.

32) 川村湊, 『滿洲崩壞-『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p.107.

33) 채훈, 『재판 한인작가 今村榮治 日文소설』, 김열규 외,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p.306.

34) 사에구사 도시카쓰, 심원섭 역,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들북, 2000, p.516.

혹은 『만주행정』이나 하는 발표지 문제와 ‘1938년 6월’, ‘1938년 7월’, 그리고 ‘1938년 초’ 등 발표년도 문제이다. 여기에 혼선을 더하는 것은 김장선의 경우 “『동행자』는 처음 『애구』(1938년 초)에 발표되었다가 『만주행정(滿洲行政)』(1938년 6월)에 다시 발표되며 몇 달 후에는 『만주낭만(滿洲浪漫)』 제1집(1938년 10월)에 수록된다. 그 이듬해에는 『만주문예연감(滿洲文藝年鑑) 제3집』(1939년 11월 10일 만주문화회 편)에 수록된다”³⁵⁾라고 주장하는데, 김장선의 주장대로라면 『만주행정』 게재 시기(1938.6)가 니시무라나 가와무라의 『애구』 게재 시기(1938. 7)보다도 앞선다. 분명한 것은 2002년 유마니서방(ゆまに書房)에서 발간한 『만주낭만』 영인본의 간기에 따르면 『만주낭만』 창간호는 ‘강덕 5년(1938년) 10월 22일 인쇄, 10월 27일 발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주낭만』 창간호에 실린 『동행자』가 초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채훈의 1938년 7월에 『만주낭만 1』이 발간되었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니시무라 신이치로의 주장이다. 그의 글이 실린 『만주문예연감 3』의 ‘저작인 대표’ 및 ‘발행인’은 이마무라 에이지였다. 따라서 이마무라가 니시무라의 평론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행자』와 관련된 서지 내용을 이마무라가 목인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니시무라가 『만주행정』에 실린 글을 접하지 못하고 『애구』의 것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니시무라나 가와무라의 주장을 오류라고 보기 보다는 『만주행정』에 실린 『동행자』를 보지 못하고 『애구』 1938년 7월호에 실린 것을 봤음에 틀림없다. 두 사람이 본 것은 초출이 아니었을 뿐이다.

35) 김장선, 앞의 논문, 115쪽. 김장선 선생은 필자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애구』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애구』 1938년 초는 김 선생의 추정이다. 다만 『만주행정』은 복사한 적이 있어 『동행자』가 『만주행정』에 실려 있음을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행자』의 초출과 관련하여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상 가장 빠른 게재는 1938년 6월에 간행된 『만주행정』이며, 1938년 7월호 『애구』, 1938년 10월 『만주낭만』 창간호, 1939년 11월 『만주문예연감 제3집』의 순으로 재록된다. 하나의 작품이 이렇듯 여러 번에 걸쳐 재록되는 것은 『동행자』가 그만큼 당시 만주국 문단에서 주목받은 작품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마무라 에이지가 『동행자』를 쓸 즈음의 생활상이나 작가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어 몇 가지 단편과 소설의 주인공 ‘신중흙’을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신경일일신문』 주필 오우치 타카오(大內隆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딘가 창고 같은 곳에서 심야에 촛불을 밝히고 원고를 써다가 작은 화재가 일어나 큰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문학에 홀린 그의 모습을 말해주는 일화일 것이다.³⁶⁾

이마무라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동시에 변변한 작업실이 없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창고’에서 창작의 열정을 불태워야 했던 이마무라의 궁핍한 삶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재로 ‘큰 화상’까지 입어가면서 그가 써내고 싶었던 만주이야기는 그를 문학에 홀리게 한 동기가기도 했다.

일본이름이 이마무라 에이지라고 하는 조선인인 장(張) 군이 문화회 사무국을 담당하기 위해 신경에서 대련으로 왔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해 피곤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시토(紫藤) 선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신적으로도,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절망에서 구제된 적도 많았던 것 같다.³⁷⁾

36) 大內隆雄, 앞의 책, p.235.

이마무라가 대련으로 온 것은 아마도 1939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38년 12월에 발간된 『만주문예연감』의 『만주문예인명록』에 보면 그의 주소가 신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8년판 『만주문예연감』을 발행한 만주문화회의 주소는 ‘大連市東公園町三一番地’³⁸⁾로 되어 있는데 1939년판의 문화회 주소는 ‘新京特別市大同大街二〇二滿日文化協會內’³⁹⁾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문화회의 주소가 바뀐 것은 1939년 8월에 만주문화회의 본부를 대련에서 신경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9년 초에 대련으로 이주한 이마무리는 1939년 8월 문화회 본부가 신경으로 옮겨가자 다시 신경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1939년 11월에 발간된 『만주문예연감』의 ‘저작인 대표’ 및 ‘발행인’으로 이마무라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39년판 『만주문예연감』 인명록의 주소도 ‘신경특별시 흥안대로 221’로 표기되어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⁴⁰⁾ 이마무리는 신경에 주소를 두고 만주문화회의 사무를 보기 위해 대련으로 이주하지만 주소로 등재할 만한 거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주거처는 ‘창고’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해 피곤’이 쌓여갔고, 그를 견디지 못해, ‘시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다양한 의견’과 ‘시토’ 그리고 ‘만주문화회’이다.

당시 만주국을 이끌고 있던 문학의 흐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만주일일신문』을 중심으로 대련과 봉천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인들

37) 青木實, 『紫藤貞一郎先生』, 『作文』第102輯, 國分寺市:作文社, 1976. 9. 1, p.54.

38) 滿洲文化會 編, 『滿洲文藝年鑑』II, 간기 참조.

39) 滿洲文化會 編, 『滿洲文藝年鑑』III, 간기 참조.

40) 위의 책, 간기 참조.

인데, 이들은 만주국 건국 이전 혹은 만주국 건국과 더불어 관동주에서 살아왔던 지식인 그룹으로, 일본 문단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창작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했다. 만철(滿鐵)만을 위주로 한 문학구락부의 성격을 띠고 출발한 『작문(作文)』 동인들이 이에 속하는데, 일명 ‘대련이데올로기’파로 불리는 그룹이다. 다른 그룹은 ‘신경이데올로기’에 속하는 작가들로, 이들은 신경의 부상과 더불어 등장한 축이다. 만주국의 건국과 중일전쟁의 발발에 따라 일본의 전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주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비록 전향하였을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장소로 만주국을 선택했다. 이 그룹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키타무라 켄지로(北村謙次郎)를 중심으로 하는 만주낭만파 작가들과 야마다 세사부로(山田清三郎) 등이 중심인 그룹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일전쟁이라는 일본의 노골적인 대륙침략에 영합해 자신의 꿈을 국책 및 식민지정책으로 실현하고자 노선을 변경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련이데올로기 그룹과 대립하기도 한다.⁴¹⁾

만주문화회는 1937년 6월 30일 대련에서 결성되며⁴²⁾, 1939년 8월에 본부를 신경으로 이전한다. 이는 결성 당시 대련에 있던 헤게모니가 1939년 8월 이후에는 신경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양화에서 획일화

41) 최정옥, 『만주국문학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p.94-95 참조. 대련이데올로기와 신경이데올로기의 상극에 대해서는 岡田英樹, 앞의 책, pp.8-22 참조할 것.

42) 결성 당시의 주된 규약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문화문예에 관심 있는 회원 상호의 연락 친목을 꾀해 만주에서의 문화 활동을 조성·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의 연구, 논문, 작품 등 발표간행에 대한 알선·원조를 꾀한다. 1. 명사가 만주를 방문하거나 기타 기회가 있을 때에 강연회나 좌담회를 개최한다. 1. 문화적 의의가 있는 사업을 주최하거나 후원한다. 1. 매월 1회 정례회,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연구 발표나 좌담·간담의 기회로 삼는다. 岡田英樹, 앞의 책, p.26.

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전체주의로, 문학주의에서 정치주의로, 다시 말해 대련이데올로기에서 신경이데올로기로의 전향”⁴³⁾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립 당시의 규약을 보면 만주문화회는 교류와 친목을 중시하는 ‘느슨한 집단’으로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문학적 의견은 다 달랐다’⁴⁴⁾고 한다. 아울러 대련이데올로기와 신경이데올로기의 노선의 차이까지 더해져 이마무라가 만주문화회의 사무를 볼 당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냈을 터이고, 일본인도 아닌 조선인이 문화회의 사무를 보고 있었으니 시달림을 당해 지쳐갔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다시 이마무라의 전기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이마무라는 1938년까지 신경에서 살다가 문화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1939년 초에 대련으로 이주하며, 1939년 8월 문화회의 본부가 신경으로 이전함에 거기에 맞추어 신경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려 시토에게로 간 것은 최소한 1939년이 지나서일 것이다. 시토 데이치로(紫藤貞一郎)는 당시 의학박사로 관동주청(關東州廳)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주문화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문화회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⁴⁵⁾ 따라서 이마무라는 신경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노선은 오히려 대련이데올로기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

창씨개명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만주국에서 이마무라 에이지는 『동행자』를 발표하던 1938년에 이미 창씨개명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어로 창작을 하였다.

만주국은 복합민족국가였기 때문에 국어는 ‘일본어’와 ‘만주어’, ‘몽고어’였다.⁴⁶⁾ 물론 이 중에서 일본어가 가장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43) 최정욱, 앞의 논문, p.108.

44) 최정욱, 위의 논문, p.107.

45) 青木實, 앞의 글, p.54 및 岡田英樹, 앞의 책, p.38.

만주국에는 국적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일 ‘국어’를 획정할 수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국어 중의 하나인 일본어를 사용하라고 강조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었다. “일본어는 일반 일덕일심의 정신에 기초한 국어의 하나로서 중시한다”라는 원칙 아래 일본어는 제1국어로 정해진다. 만주국 총인구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3%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⁴⁷⁾ 이마무라 에이지의 『동행자』는 이런 언어적 환경 속에서 일본어로 창작되었다. 일본어라는 <단 하나의 국어>만 통용되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어 선택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로 창작된 이상 만주국에서는 제한된 독자만 3%의 일본인과 일어를 해독할 수 있는 타민족 그의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마무라의 『동행자』는 당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한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사량은 그의 소설 『천마』에서 ‘이명식’의 입을 빌려 “조선인의 80%가 문맹이고, 게다가 글자를 해독하는 자 가운데 90%가 조선글자밖에 읽을 줄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⁸⁾ 이는 글쓰기의 고민 중 언어 선택의 문제와 관련한 문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명식’이 지적한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언어 선택은 작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

46) 川村湊, 『海を渡った日本語-植民地の「國語」の時間』, 東京:青土社, 1994, p.178 여가서 말하는 만주어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민족어로서의 ‘만주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주국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로서의 중국어(漢語=滿洲語=滿語)를 말한다.

47) 이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p.284. 1940년 기준 만주국의 총인구는 4,300만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漢族이 86%(3,700만), 만주족 6%(270만), 回族 5%(200만), 조선인 3%(150만), 몽고족 2%(100만), 일본인 2%(86만) 정도였다고 한다.(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東京:滿蒙同胞援護會, 1971, p.58.)

48) 金史良, 『天馬』, 金史良全集編輯委員會, 『金史良全集』 1, 東京:河出書房新社, 1973, p.77.

축되어 있다. 나아가 ‘이명식’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선택은 오로지 작가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내지어로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언어의 소비자스트는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이나 마음, 예술을 널리 전하기 위해 매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지어로 쓰는 것이 불만스러운 사람, 또는 실제로 쓰지 못하는 사람의 예술을 위해서는 이해 있는 내지 문화인의 지지와 후원 아래, 해마다 좋은 번역 기관이라도 마련하여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지어라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붓을 꺾어야 한다든가 하는 일파의 언설 같은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⁴⁹⁾

‘애국주의라는 미명하에 숨어 조선어로 저술은커녕 자체의 존재조차도 정치적인 무언의 반역이라고 참무(讒誣)하고 다니는 자’⁵⁰⁾인 소설 속의 주인공 ‘현룡’을 염두에 둔 위의 발언은 당시 언어 선택과 관련한 작가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김사량이 인식하고 있는 당대 글쓰기의 분위기는 다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순수한 문화적 저술 행위도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는 그 본래적인 예술 정신조차 자칫하면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당국의 오해를 사기 십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특히 사변(중일전쟁: 인용자) 이후 그 의구심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현룡은 그걸 기회로 애국주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팔면서 설치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불안과 초조, 고민의 심연으로 떨어뜨렸던가.⁵¹⁾

49) 위의 소설, p.78.

50) 위의 소설, p.78.

51) 위의 소설, p.78.

당대 정치적 특수상황에서 ‘본래적인 예술 정신’을 견지한다는 것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절필, 숨어서 글쓰기, 아니면 체제순응의 글쓰기였을 것인데 작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길은 양자택일이었을 것이다.⁵²⁾ 이마무라 에이지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마무라 에이지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글쓰기를 ‘애국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애국주의의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비애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예술가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요. 자연은 황폐하고 민중은 무지하고, 인텔리는 또 예술의 고귀함을 모릅니다. (중략) 모든 것이 미련하고 기쁨이 없으며, 또 어느 한 사람도 조선의 예술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발버둥을 칠 뿐입니다. 나도 결국 쓰레기 속에 버려진 한 사람의 희생자입니다.⁵³⁾

일본어 글쓰기와 창씨개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그가 굳이 ‘신중함’처럼 파탄의 지경으로 나아간 것을 두고 이마무라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까? 김사량은 『천마』에서 ‘현룡’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소설가 현룡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다. 본성은 지극히 약한 겁쟁이로, 문학적인 재능도 조금은 타고났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어찌할 수 없는 궁핍과 고독과 절망이 그의 머리를 착란시켜 버렸다. 게다가 지금은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회가 그를 점점 혼미로 몰아넣은 것이다.⁵⁴⁾

52)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문학자의 자기비판-좌담회』, 『인민예술』 2호, 1946.

10, 송기한 외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태학사, 1991, pp.164-172 참조할 것.

53) 위의 소설, p.79.

54) 위의 소설, pp.80-81.

이마무라 에이지의 창씨개명이나, 『동행자』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한 행동이나 심리는 내선일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여전히 횡행하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글쓰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일제 통치하를 살아내려고 한 조선인의 굴욕스러운 삶의 행보는 바로 일종의 정치행위로 여기지는 것이다. “친일과 항일은 같은 뿌리에서 생겨난 다른 가지라는 시점에서 수난의 주체인 ‘일제시대’의 무시무시한 원동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⁵⁵⁾는 한 일본인 연구자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3. 내선일체의 균열과 ‘내부자 시선’으로 본 재만조선인의 서사

『동행자』⁵⁶⁾는 “신중흙(申重欽)의 생활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55) 田中益三, 『受難のポリグラフ-『在滿』朝鮮人像について』, 昭和文學會, 『昭和文學研究』第25集, 1992. 9, pp.67-68.

56) 본고에서 인용하는 텍스트는 『만주문예연감 3』(1939. 11)에 실린 『동행자』이며, 이후 인용에서는 페이지만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본어 원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번역문만 실기로 한다.

『동행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직전, 생활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주인공 신중흙이 생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련, 장춘 등 도회 생활을 접고 짐마차를 타고 이틀이나 걸리는 시골의 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신중흙은 함께 갈 동행자를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였고, 주인은 마침 신중흙이 가려고 하는 시골에서 큰 농장을 하는 일본인이 조선인 동행자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둘을 연결해 준다. 일본인은 조선식으로, 신중흙은 중국식으로 복장을 차려 입고 시골길로 떠난다. 사실 일본인이 조선인을 동행자로 구하려고 한 이유인 ‘불령선인’ 때문이었다. 여로 중에 불령선인을 만날 경우 조선인 동행자가 있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염려대로 불령선인이 나타나자 일본인은 신중흙이 불령선인과 한패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자 그 의심에 부화가 치민 신중흙이 일본인의 손에 있던 권총을 빼앗아 불령선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된다는 것이 소설의 요지이다.

골목에 도달해 있었다”라는 들머리의 나레이션과 ‘신중흠’이 내뱉는 “오히려 빨리 확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는데”라는 내면고백이 호응하여 빛어내는 서사가 당대 만선인들의 내면풍경을 진솔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31년 만주사변 직전, ‘일본과 지나의 풍운(風雲)’이 급변하는 8월달이다. 주인공은 ‘나카무라(中村)사건’이나 ‘만보산사건’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전혀 불감증적인 무관심’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개인생활의 꺾박상태가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생활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이유를 소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의 풍습이나 습관을 싫어하고 말까지 잊어버린 채 일본인이 되려고 애썼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결국 그 어느 쪽에도 수용되지 못하고 양쪽으로부터 절연당해 원시적이고 문화 수준이 낮은 만주의 벽촌으로 쫓겨 가고 있는 나.(강조: 인용자)

신중흠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웬지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기도 하고, 또 세기(世紀)의 과정에서 태어난 비극배우같기도 느껴졌다.⁵⁷⁾

신중흠의 일본인 되기는 철들 무렵부터 아버지에 의해 훈육된 결과이다. 그의 아버지는 신중흠이 겨우 철이 들 무렵부터 그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이미 우리는 모두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말 것이며, ‘조선과 일본은 하나가 되었으니 ‘훌륭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라고 가르쳤다. 그 결과 신중흠은 ‘축일 등에 일본인 교장이 봉독하는 교육칙어를 누구보다도 엄숙한 얼굴’로 들었으며, ‘수신이나 일본사를 열심히 배워, 일본국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성장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고향을

57) 『동행자』, pp.295-6.

버리고 대련으로 와 10년 동안 조선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인 친구도 하나 없이 ‘일본인과 일하고 일본인과 놀고 일본인과 생활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점에서 완전히 일본인’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처럼 ‘시세’에 순응하면서 일본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적인 틈’과 마주해야 했다. 그 틈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신중흠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숙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고, 내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균열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신중흠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세상의 전복을 소망하게 된 것이다. ‘확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과 그를 지탱하던 도회의 삶을 버리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생활’을 위해 벽촌으로 떠나야 하는 울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민족적 경계인인 신중흠은 방황하고 있었다. 그 방황은 ‘불령선인’에게 총구를 겨누으로써 자기증명 방식으로 결론을 맺지만 그 결론은 문제의 회피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기의 과정이 만들어낸 비극배우’인 신중흠의 울분과 방황, 균열이 신중흠만의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양산되던 수많은 ‘신중흠’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중흠은 일본인의 시선에서는 하위주체(subaltern)이다. 그러면서 이 주자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 그는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 밖의 존재이다. 몸은 만주라는 공간에 존재하지만, 어떤 법적·정치적 영역 안에도 존재할 수 없는 배제의 희생물이 바로 신중흠이었다. 그에게 내선일체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일제가 제국의 이윤을 향해 왕도낙토니 오죽협화니 외치며 질주할 때 일본인들에게 그것은 때깔 좋고 맛도 좋은 열매로 보였지만, 신중흠은 대신 병들고 말라갔다. 비록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으로써 <건강한 회의주의자>라 할 수는 없지만, 총구를 겨누기까지 그의 내면에서 분출하고 있는 균열의 과정은 그가 회의하고 있음을 방증한

다. 피식민자 내부에서 균열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만주국과 그 조종자 역할을 자임했던 일제의 정책 속에서 싹트고 있던 균열의 지점에 이마무라 에이지는 신중함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문명을 공통의 문명으로, 최상의 개념이자 목표로 설정하려 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어긋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아래 인용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자네는 조선인이면서도 매우 일본인 행세를 하니가 마침 딱 좋겠다 싶어서”

그리 말하고 주인장은 여러 사람 몫의 경멸감을 모아 한꺼번에 표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신중함을 쳐다본 후 다시 흠하고 기침을 했다.

신중함은 주인장의 나중 말이 바늘 끝같이 느껴졌다. 말하자면 그 때문에 생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도 생각하는 신중함의 가슴에 그 말은 따끔하게 이품을 가져왔고, 또 매우 부이를 돋우었다.⁵⁸⁾

신중함이 일본인 행세를 하면 할수록 동족에게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으며, 일본인에게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본인은 아닌 인종’으로 취급당했다. 호미 바버는 “모방의 가시성은 항상 금지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다”⁵⁹⁾고 말하였다. 허용된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 그 사이에 낀 신중함은 금지의 장소에서 만들어내는 규칙에 의해 길들여지지만, 동시에 내적 불일치에 의해 주체적 우월성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길들여지기과 미끄러짐의 양가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중함의 내면에 심한 균열을 만들었다.

정성스레 가꾸어왔던 주체를 향한 삶의 방식이 주체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의심 받자 신중함은 분노했던 것이다. 그 분노는 자신을 포용하지 못하

58) 『동행자』, p.293.

59) 호미 바버,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3, p.186.

는 주체에 대한 항변이며, 그런 환경을 조장하거나 좌시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중흙의 내부로 촉수를 가져가면 그 분노는 자신의 발판을 잃어버리는 ‘세상 상실’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인 동행자에게 권총을 빼앗는 행위는 세상과 인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밀 코드 같은 것이다. 동족인 ‘불령선인’⁶⁰⁾을 향해 총을 겨누게 하는 세상,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의 인간, 그리고 그런 세상과 인간에게 대해 절망하는 자신을 향한 울분의 코드가 신중흙으로 하여금 동족에게 권총 겨누기로 표상된 것이다. 신중흙이 불령선인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세상, 즉 일본인 ‘동행자’에게 겨누는 행위로 읽을 수도 있다. 그 코드는 내선일체를 끊임없이 주창하나 그것을 화학적 결합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일체에 대한 항변이자 균열의 코드였다.

균열은 신중흙과 일본인 동행자의 복장 선택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신중흙은 ‘줍도둑(小盜兒)시장’⁶¹⁾에서 사온, 지저분한 지나인의 옷으로, 일본인은 조선인 복장으로 바꿔 입고 있었다. ‘줍도둑 시장’에서 사온 지나옷을 입은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신중흙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물든 식민자의 내면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중흙과 일본인 사이의 엇갈리는 시선이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내면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마 무리는 지적하고 있다.

60) ‘불령선인’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악질적인 술어’이다.(金正柱, 『朝鮮統治史料-不逞鮮人』 제8권, 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1, 해설 p.1 참조.) 조선총독부경무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불령선인 혹은 불령단체는 항일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주의자이거나 임정을 위시하여 항일독립무장단체들을 의미한다.

61) 쏘토얼은 중국어로 『小盜兒』 즉 『줍도둑』이란 말이다.(『황설수설』, 『동아일보』, 1958. 5. 25. p.2.)

이마무라가 현실에서 경험한 이런 민족적 고뇌는 일제하 대만인 지식인의 그것에 유비된다. 대만의 식민치하에서 지식인이 되었지만 일본인의 ‘모멸과 폭력사건’을 경험한 뒤, 대륙을 동경하여 중국 본토로 건너간 오탁류(吳濁流)가 ‘대만에서도 대륙에서도 식민지 출신자로서’ ‘소외감’을 느껴 스스로를 ‘아시아의 고아⁶²⁾’라고 느낀 바로 그 지점에 이마무라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지식계급이 조선성(姓)을 쓰는 자를 존경하고 내지성을 붙이는 자를 은근히 경멸하는 것은 경시하기 어려운 사실⁶³⁾”이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씨개명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이름을 바꾼 장환기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차별의 시선에서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소설 속의 일본인과 신중흠은 동일성을 가질 조건이 처음부터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족차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었다. 이광수가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⁶⁴⁾”라고 말하면서 창씨개명의 이유를 구차하게 둘러대는 내면에도 사실은 당시 만연하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불만이 전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신중흠의 내면심리 속에는 복종과 그것을 철회하고자 하는 양가적 감정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균열이 불령선인에게 총을 겨눴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복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내면에서 짝고 있는 불복종의 균열은 제국 일본이 차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틈새가 벌어질 것이다. 신중흠이 오늘은 제국 일본과 동행하지만 내일도 동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행은 유보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을 신중흠을 통해 알 수 있다.

62) 藤井省三, 『『帝國』日本の學知』第5卷, 東京: 岩波書店, 2006, pp.30-31.

63) 宮田節子, 이형량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p.88.

64) 이광수, 『창씨와 나』, 『매일신보』, 1940. 2. 20.

<일체>라는 이름의 부드럽고 온화한 환상 뒤에 숨어서 제국 일본이 조장하는 차별적 기만을 신중흙은 아파했다. 그는 오죽협화의 상징인 낙토의 중심부 ‘도시’에서 떠나는 것으로 고통을 회피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신중흙의 마음속에 일던 균열의 짙은 그에게 새로운 ‘조형력’⁶⁵⁾을 꿈꾸게 하였던 것이다. 그가 형의 농장으로 합류하려는 것은 그의 내면균열이 가져온 새로운 자기구성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처방전은 아니다. 신중흙이 취할 수 있는 빈약한 처방일 따름이다. 그렇더라도 신중흙이 질병을 진단하고 그런 처방이라도 내렸다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감상적인 현실 도피라고 하더라도, 신중흙이 <그 때, 그 곳에서> 취할 수 있었던 절박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내면에 일고 있던 울분과 균열은 일본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을 때보다 동족을 향해 총구를 겨누므로써 더 큰 극적 효과를 내는 소설적 장치일 수 있다. 내선일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더라도 조선인은 끝끝내 조선인일 수밖에 없다는 울분을 이마무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동행자로 나서지만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를 전면에 노출시키는 일본인에게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은 천황의 신민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신중흙이라는 기형적 인물을 창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짐마차를 타고 이틀 걸리는 xx현(縣)에, 신중흙의 큰형이 처자를 데리고 이민을 와서 15년째 된다. 2년에 한 번 꼴로 소식이 오지만 아직 한 번도 답장을 한 적도 없다. 그 형이 있는 곳에 신중흙은 갈까 말까 요즈음

65) 조형력이란 스스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거의 것과 낯선 것을 변형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며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한 것을 대체하고 부서진 형식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진우 역,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 책세상, 2005, p.293.

결정을 못하고 고민 중이었다.

짐마차를 타지 않고서는 교통편도 없을 것 같은, 만주의 아주 외진 곳에 가서 큰 형네와 함께 농사짓기에는 신중흠은 도시의 문화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⁶⁶⁾(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은 당시 만주에 이주해 사는 조선인들의 일상을 가감 없이 묘사한 대목이다.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인의 경우 농농사 기술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인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무작정 만주로 이주해갔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인 지주에게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빌려 소작을 해야 했다. 그리고 만척에 의해 입식이 시행된 후에도 한 사설은 “입식지는 미간지(未墾地)를 주로 하는 관계상 그 대부분이 무주(無主)지대나 혹은 궁벽한 오지가 되어 교통의 불편, 경비의 불량, 교육기관의 불비(不備) 같은 것은 고사하고 가옥건조와 위생시설이 완비치 못한데다가 더욱이 생활필수품의 배급이 원활치 못하여 심지어는 각종 질병이 발생 창궐하여 인명을 빼앗는 일까지 많다”⁶⁷⁾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흠’이 형으로부터 2년 꼴로 한 번씩 소식이 오지만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신중흠이 ‘문화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짐마차를 타지 않고서는 교통편도 없을 것 같은 만주의 벽촌’이 상징하는 조선이주농들의 궁핍한 삶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당시 만주에서 살아가던 조선인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입식지에 가려면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이어서 기차에서 내려 ‘도보

66) 『동행자』, pp.293-4.

67) 『開拓部落醫療問題(社説)』, 『滿鮮日報』 1940. 8. 10.

로 사십리 길을 답과'하고 하루 밤을 중간에서 묵은 뒤 다시 도보로 오십여 리 하룻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의 벽촌이거니⁶⁸⁾, 그나마 도착한 곳에는 주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주민의 집에 나누어 들었는데 보통 '1동에 2호 혹은 3호가 살아왔지만 새로 들어온 농민들로 말미암아 집을 새로 세우기까지는 1동에 3호 혹은 4호 혹은 그 이상'⁶⁹⁾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나마 집에 기숙하는 것은 다행으로, '집도 없이 남의 헛간'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으며⁷⁰⁾, 도회의 경우 '쥬니-까이(中二層)'라는 '원시시대의 헐거생활 같은 진주거(珍住居)'⁷¹⁾가 등장할 정도로 열악했다. 농사를 지으면 '도둑놈'에게 곡식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칠 때도 있었다.⁷²⁾ 때로는 일본이민부락과의 강제 합병을 거부한다고 일본인들이 집에 불을 지르거나 날창으로 사람을 죽여도 속수무책이었다.⁷³⁾ 뿐만 아니라 위생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건너가서 두 달도 못 돼서 19살밖에 안 되는 생때같은' 아낙이나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죽는 일도 있었다.⁷⁴⁾ 재만 조선인들의 삶이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신중흠이 형과 함께 농사를 지으려 '벽촌'으로 들어가려고 작정한 것은 반전이다.

윤건차는 “‘민족=국민’과 같은 공동태로 동화될 수 없는 제일 동포들이 ‘자기’ 내면을 확립하는 방법은 기억 및 확인으로서의 역사의식, 민족의식

68) 간도지사 최무, 『개척민입식현지답과기-동만반(5)』, 『만선일보』, 1940. 3. 26.

69) 『개척민입식현지답과기 6』, 『만선일보』, 1940. 3. 24.

70) 이성권 편,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p.7.

71) 『窮餘之策으로 創造한 珍無類 “쥬니-까이”』, 『만선일보』, 1940. 4. 3. ‘쥬니까이’는 방 바닥과 천정 사이에 선반을 하나 설치하여 만든 주거공간이나 지붕 아래 방을 설치한 주거공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72) 김도형 엮음,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II』, 선인, 2009, p.54.

73) 위의 책, p.15.

74) 위의 책, p.6.

을 보유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⁷⁵⁾ 형을 기억해 내는 것은 혈육, 나아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며, 기억의 작용은 내적으로는 민족 동일성의 지향을, 외적으로는 일제에 대한 균열 혹은 이탈의 담론을 생성한다. 형=민족이라는 구도는 신중흠=일본인이라는 구도를 환기하지만, 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되어가는 형국이다. 일제와 결탁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주체로의 진입을 피하지만 의심과 모멸의 타자로 떨어지고 마는 현실의 비극을 이마무라는 신중흠을 내세워 재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조선인이 황국신민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면서도 ‘폐하의 적자인 소지는 폐하를 위해 한 목숨을 바쳐 군인의 본분을 다할 결심’⁷⁶⁾이라는 맹서를 하거나,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⁷⁷⁾으로 행동하여야 했다. 이것은 민족모순이 빚어낸 트라우마의 결과였다. 민족모순의 현실은 점차 ‘상호 불신의 증폭작용’⁷⁸⁾으로 작동해 조선인은 더 열광적으로 일본인이 되어가야 했고, 그럴수록 공동화(空洞化) 또한 가속되었다. 이런 모습은 식민지인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의 현상이다. 프란츠 파농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억눌린 분노가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허무로 변하고 피억압자 자신들을 황폐케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학살까지 합니다. 그들은 참된 적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종족간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의 적대관계를 고조시키기 위한 식민지

75) 윤건차, 이지원 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사, 2003, p.345.

76) 鈴坂史郎, 『その後の志願兵一家への手紙』, 『線旗』 1941. 11. p.169.

77) 金基鳳, 『私と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日本の陸軍少年飛行兵として』, 季刊『現代史』3號, 現代史の會, 1973. 11, p.17.

78) 宮田節子, 앞의 책, p.79.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동료에게 칼을 들이치는 사람은 그가 그 보기도 싫은 그들 공통의 퇴보상을 단번에 분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숨을 내쉬는 희생물들이 그들의 피에 대한 갈증을 꺼주지는 않지만.⁷⁹⁾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여 총구를 동족에게 겨눴으로써 신중함은 죽음과 국적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 참된 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았다. 만주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조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주인공은 일등국민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반민족 행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신고의 고통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던 당시 만주국 ‘조선인’의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수궁이 가는 측면도 있다.

민족적으로 보면 조선인이지만 국적(법적)으로 보면 일본인이라는 양가성에는 만주국에 사는 조선인들의 모순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만주국 중국인들에게 의심과 멸시를 당하고 있던 조선인이 비밀 언덕은 조선‘족’(에쓰니)이 아니었다. 치외법권이라는 국적(법적) 장치에 기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안전판이었을 것이다. 민족적에 근거한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반민족적 행위와 일본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제국주의자’의 모순적 위치에서 사이에 낀 존재의 아픔을 이 소설은 대변하고 있다. 이 ‘사이’를 읽어내는 것이 이마무라 에이지가 소설을 통해 호소하고 싶었던 본질일 것이다. ‘사이’를 보는 눈, 이것이 만주국에 거주하던 조선‘족’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

기왕의 “재만의 경험을 다룬 소설들이 관습적으로 취하고 있던 전략, 즉

79) 프란츠 파농,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광민사, 1977, p.17.

위계화된 인종적 질서의 재생산을 통해 배타적인 민족적 자기동일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개척’과 ‘수난’의 서사를 강화하는 방식”⁸⁰⁾으로 글쓰기가 진행되었다면 『동행자』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이’의 소설인 것이다.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실제 삶에서는 ‘위계화된 인종적 질서의 재생산을 통한 배타적인 민족적 자기동일성의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경험의 진술이 이마무라 에이지의 소설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이마무라 에이지의 현실적 고민이 가감 없이 기술된 이 소설을 민족적 관점에서 폄하하기에는 만선인의 삶이 너무 복잡했다.

만주에서의 조선인은 내선일체에서 선만일여에 이르는 진폭의 자장 속에 포섭되어 있었다. 일제는 ‘내선일체’나 ‘선만일여’의 규격에 맞지 않는 조선인을 ‘불령선인’이나 ‘비적’으로 규정하여 배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⁸¹⁾ 뿐만 아니라 만주의 조선인들은 집요한 차별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항일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고, 중국인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여분의 인간>이나 적대자로 취급되었다. 조선인은 두 민족에 의해 협공을 받은 <수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만주는 ‘오족협화’, ‘왕도낙토’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는 고통으로 가는 루트였던 것이다.

신중흙이 ‘재만조선인 문학의 친일 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⁸²⁾인 이마무라 에이지의 분신이라 할지라도 신중흙의 고뇌를 추적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재만 조선인은 <정신적 혼혈아>일 가능성이 상존했고, 특히 재만조선인문학은 순혈문학이라기보다는 <혼혈문학>이며, 그 뿌리는 만주라는 ‘아버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만주

80) 한수영, 『재만이라는 경험의 특수성』, p.224.

81) 위의 글, p.56.

82)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p.37.

라는 매우 정치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던 재만조선인의 디아스포라적 위치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복잡다기한 삶의 양태를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만조선인이 그려낸 만주문학은 단순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마무라 에이지의 비극이 지속적이면서도 가혹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연구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반문하면서 다음을 인용한다.

쇼조(省三)에게는 귀국하면 비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조국이 있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이마무라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을까? 이제는 완전히 중국정부 치하에 들어간 동북지구의 만주에서, 반도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마무라가 매우 지나칠 정도로 일본인처럼 생활했기 때문에(중략) 쇼조는 이마무라 에이지의 앞으로의 전도(前途)가 그리 밝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우려할 뿐이었다.⁸³⁾

이마무라 에이지는 ‘민족적 고아’였다. 샤오쥘(蕭軍)의 장편소설 『팔월의 향기』에 루신이 써준 서문 중 “잃어버린 하늘, 토지, 수난을 받는 인민, 그리하여 잃어버린 풀, 고량, 귀뚜라미, 모기”⁸⁴⁾라는 구절이 있다. 빼앗긴 자의 울분을 토로한 이 글귀는 루신이나 샤오쥘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만주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이 공유하고 있던 경험이었을 것이며, 이마무라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울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행자』는 이마무라의 내면에 일고 있던 균열의 싹을 진솔하게 드러내보였으며, 루신의 울분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83) 竹内正一, 앞의 소설, p.51.

84)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앞의 책, p.276 재인용.

4. 결론

만주는 저항과 친일이라는 상반된 공간으로 각인된다. 동시에 오족협화론이라는 확장된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의 위치가 준제국주의자의 범주로 확장될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만주국은 조선인의 행복”⁸⁵⁾이라는 말에는 당시 만주를 바라보는 조선인의 시각이 집약되어 있다. 하지만 ‘만주국’이 ‘조선인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전되더라도 만주라는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가령 만주에는 저항의 공간과 친일의 공간이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교접하지만 “만주국이 있었던 공간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존재한 재만 조선인들의 공간이라는 이중성에서 만주를 파악할 필요”⁸⁶⁾가 있다. 즉 이 이중적 공간에서 조선인들이 이중성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주국 속의 재만 조선인이라는 식으로만 간주되어 저항 혹은 협력이라는 양자택일만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을 곡절히 그려낸 작품이 이마무라 에이지의 『동행자』이다. 그리고 신중흠은 당시 만주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의 망탈리테(mentalite)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이다. 특히 이마무라 에이지라는 개인의 심성구조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집단적 심성구조를 이해하는데 더 유용한 상징이다. 『동행자』는 지식과 권력의 구성체를 통해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고, 억압받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신중흠의 절망은 균열에서 비롯되었다. 그 균열은 중층적이었다. 내선일체, 오족협화, 창씨개명, 개정교육법 등 일제가 내세운 정책마다 내선불일

85) 본지특과기자, 『만주국총영사관-왕도낙토·오족협화의 이상향』, 『조광』, 1938년 10월호, p.89.

86) 이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앞의 책, p.6.

치의 현장이 목격되었다. 왕도낙토의 만주국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숙지하지 않았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쪼개지고, 미끄러지던 식민지 정책을 조선인은 맨 얼굴로 대면했다. 표면과 내면의 괴리는 의심을 조장했으며, 의심하는 인간을 만들어냈다. 의심은 신중흠의 것이기도 하지만 재만조선인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것이기도 하였다. 이마무라는 의심을 코드로 하는 소설쓰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합리에 대해 항변하였다. 소설 속의 동행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받게 된 실존적 존재에 대한 의심을 용납할 수 없었던 신중흠의 울분은 당대 조선인의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마무라는 비유와 상징 혹은 암호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셈이다. 그 숨겨진 언어를 이마무라는 권총이라는 상징으로 구체화했다. 이마무라의 상징을 온전히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그 일부를 추적해갈 수는 있다. 이마무라는 힘겨운 세상에서 그만의 코드로 세상을 암호화했다. 그 코드를 두 개의 암호로 보고 해독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친일이라는 코드로 신중흠을 해독했다. 그 해독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빈치 코드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중흠의 코드를 다른 해독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중흠은 친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친일행위를 단행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도 늘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마음의 코드로 남겨 놓았다. 그래서 스스로 내면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창출한다. 그것이 신중흠의 의심 방식이다. 자신이 걷던 친일의 길에 대한 정당성을 반복하여 재생하지만 주제로 향해 가는 자신을 회의하는 내면을 신중흠은 알아차렸다. 친일과 의심, 그 둘은 울분이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 그 울분의 표출은 친일의 수용과 결별의 갈림길을 만들었고, 신중흠은 수용을 선택했다. 수용은 의심받는 자신을 입증할 보증수표였겠지만 흔쾌한 것은 아니었다. 불령선인에게 총구를 겨눈다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식민

자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지 않을 것을 신중흠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분노는 가중된다. 이는 내선일체의 허구에 대한 비난으로 해독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눈을 읽어낸다고 신중흠의 친일적 행위가 가벼워지거나 부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중흠의 권총에 두 가지 코드가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제만 조선인 작가의 내면을 해독하는 행위는 당시 수많은 신중흠의 고뇌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내선일체와 불량선인, 이 두 가지 교차점에서 <신중흠들>은 혼란스러웠다. 각각의 실체를 인증하지 않을 수 없는 혼란함, 그것은 바로 민족적 갈등이었다. 내선일체와 불량선인은 실체였고, 그것이 신중흠만의 것이 아니라는 엄중함은 이 소설을 낳았다. 아무리 해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현실, 그러나 끊임없이 주체가 되라고 강요하는 현실, 이 부조리함에 대한 울분을 이마무라는 그려냈다. 이마무라는 신중흠을 통해 조선인을 내선일체라는 이름으로 묶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었다. 신중흠이 걸어간 길은 이마무라 자신의 길이었고, 그 끝이 <피스톨 권하는 세상>이라는 결론은 안타깝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마무라의 친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비록 이마무라의 친일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신중흠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내면의 균열과 울분이 내선일체가 낳은 허구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마무라는 역사의 희생물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경성일보』, 『국민문학』, 『內鮮一體』, 『동아일보』, 『滿洲文藝年鑑』 I ~ III, 『만선일보』, 『조선일보』, 『조광』, 『조선중앙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 김경일 외, 『동아시아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p.17.
김도형 엮음,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II』, 선인, 2009, p.54.
김장선, 『이마무라 에이치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국제한인문학회, 2005, p.125.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p.37.
金正柱, 『朝鮮統治史料-不逞鮮人』 제8권, 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1, 해설 1.
리성권 편,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p.7.
송기한 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태학사, 1991, pp.164-172.
채 훈, 『재만 한인작가 今村榮治 日文소설』, 김열규 외,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p.306.
최정옥, 『만주국문학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p.94-95.
한수영, 『‘재만(在滿)’이라는 경험의 특수성』, 『동남어문논집』 제29집, 동남어문학회, 2010, p.225.
_____,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pp.136-190.
宮田節子, 이형량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p.88.
사에구사 도시카즈, 심원섭 역,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틀북, 2000, p.516.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p.284.
윤건차, 하중문·이애숙 역, 『日本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p.9.
윤건차, 이지원 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사, 2003, p.345.
프란츠 파농, 박종렬 역,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광민사, 1977, p.17.
프리드리히 니체, 이진우 역,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 책세상, 2005, p.293.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3, p.186.

- 岡田英樹, 『文學にみる『滿洲國』の位相』, 東京:研文出版, 2000, p.281.
-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東京:未來社, 1997, p.149.
- 金基鳳, 『私と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日本の陸軍少年飛行兵として』, 季刊『現代史』3號, 現代史の會, 1973. 11, p.17.
- 金史良全集編輯委員會, 『金史良全集』1, 東京:河出書房新社, 1973, p.77.
- 大內隆雄, 『滿洲文學二十年』, 新京:國民畫報社, 1944. 10. 5, p.240.
-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舊く滿洲>文學關係資料集』(2), 2001. 3, p.2.
- 藤井省三, 『『帝國』日本の學知』第5卷, 東京:岩波書店, 2006, pp.30-31.
- 鈴坂史郎, 『その後の志願兵-家への手紙』, 『綠旗』1941. 11, p.169.
-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東京:滿蒙同胞援護會, 1971, p.58.
- 田中隆一, 『日帝の『滿洲國』統治と在滿韓人問題:『五族協和』と『內鮮一体』の相剋』, 만주학회, 『만주연구』1, 2004, pp.89-103.
- 田中益三, 『受難のポリグラフ-『在滿』朝鮮人像について』, 昭和文學會, 『昭和文學研究』第25集, 1992. 9, p.56.
- 竹內正一, 『哈爾濱・新京——引揚者の手記』, 『作文』第67集, 東京:作文社, 1967. 7, p.49.
- 川村湊, 『滿洲崩壞-『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東京:文藝春秋, 1997, p.107
- _____, 『文學から見る『滿洲』-『五族協和』の夢と現實』, 東京:吉川弘文館, 1998, p.110.
- _____, 『野川隆・今村榮治・埜英夫作品集 解説』, 『日本植民地文學精選集 22』, 東京:ゆまに書房, 2001, p.6.
- _____, 『異郷の昭和文學』, 東京:岩波書店, 1990, pp.26-27.
- _____, 『海を渡った日本語-植民地の『國語』の時間』, 東京:青土社, 1994, p.178.
- 青木實, 『紫藤貞一郎先生』, 『作文』第102輯, 國分寺市:作文社, 1976. 9. 1, p.54.
- 黒川創, 『解説-螺旋のなかの國境』, 黒川創 編, 『<外地>の日本語文學選2-滿洲・內蒙古/樺太』, 東京:新宿書房, 1996, p.342-3.

Abstract

National Sense of Orphanhood of a Marginal Man

- Focused on *A Companion* of Imamura Eiji -

Noh, Sang-Rae

Manchkuo was a place of entanglement. The major reason of this entanglement was rooted in the point of view, to see Chosun people as Japanese people or Manchkuo people. In addition to this, with the coexistence of Naisen Ittai(the Unity of Japan and Chosun) as a logic of assimilation and the abolishm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Chosun People, the identity of Chosun People in Manchkuo became more and more unsettled. It was *A Companion* of Imamura Eiji which showed best the phenomenon of entanglement. He was a writer who worked actively with the changed name to Japanese name before Soshi Kaimei(enforced change of name from a Korean to a Japanese one) was enforced officially, which was an important point in understanding Chosun people like Imamura Eiji.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ift in the inside of Manchkuo by way of *A Companion* which tried to see the Chosun People in Manchkuo with the view of insider. Especially, By searching out the substance of discrimination hidden in the logic of the Unity of Japan and Chosun and Five Races Under One Union,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gony of Imamura Eiji who worked as a Chosun writer whose name was changed into Japanese name, which leads us to bear a burden or a task to study pro-Japanese literature more precisely.

Key Word : *A Companion*, Unity of Japan and Korea, Five Races Under One Union, Crack of inside, Futei Senjin, Manchkuo

노상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810-2120

전자우편 :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